

컴퓨터 없는 세상은 상상할 수도 없다

# 낭만 컴퓨터 이야기



박용식  
루루 시스템 실장

컴퓨터라는 기계가 보편화되면서 우리의 삶은 윤택하게 되었으며 의식주 다음으로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다. 컴퓨터는 우리의 감성코드와 잘 어우러지는 애완동물과 같은 생각이 든다. 우리 생활에 절대 없어서는 안될 애물단지 컴퓨터를 소중하게 가족처럼 아껴주어야 한다.

## 낭만과 어우러지는 컴퓨터

아직 장마 비는 아닌듯 한데 부슬부슬 온종일 비오는 날입니다. 사무실 창밖 초록의 은행잎들이 빗방울을 한웅큼씩 들고 있다 힘에 겨운듯 아래로 떨구곤 합니다.

이런날은 케니지(Kenny.G)의 섹스폰 선율과 함께 비오는 남한강변의 정취를 느껴보고 싶군요. 하지만 사무실 가득 쌓인 일거리가 문제군요. 이럴땐 스피커엔 케니지 연주의 mp3 파일을 살며시 띄우고 모니터 바탕화면엔 물안개 자욱한 호숫가 정경을 가득 채웁니다.

그리고 잠깐 아주 잠깐만 화면속으로 걸어들어가 보세요. 작은 행복도 느낄 수 있습니다. 컴퓨터와 낭만은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어요.

문득 이런 생각 한번 해보았어요. '의식

주' 다음은 뭘까요? 성생활이란 의견도 있고 인간의 이성과 감성이란 의견도 있습니다. 그러나 필자는 '기'(機)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주위의 수많은 인간의 삶을 윤택하게 해주는 기계들 그중에서 컴퓨터가 의식주 다음일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성과 감성을 가진 사람이 이성도 만나고 감성을 서로 나눌 수 있는 공간도 컴퓨터가 제공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 애완동물처럼 가족같이

우리가 가족으로 생각하는 살아있는 애완동물만큼 매일같이 함께 하는 우리가족이 되어버린 새로운 친구는 아빠랑 바둑이나 장기도 함께하고 엄마랑은 고스톱, 아이들에겐 숙제도 해주고 멋진 게임의 세상

으로 데리고 가서 놀다오고, 그러다보니 어느새 우리 꼬마들은 모니터 보면서 양치질하고 모니터 앞에서 라면 먹고 재부팅하는 동안 화장실 다녀오고 바이러스 검사하는 동안 밥 먹고 컴퓨터를 끄지 않고 조각 모음 하는 동안 취침하고... 이렇게 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친구가 그동안의 친분에도 불구하고 얼굴이 파랗게 질리거나 이상한 문자로 알아 볼 수 없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에게 만행(?)을 부리기 시작하면 아름다운 선율의 음악도 들을 수 없게 되고 재미있는 그림이나 이야기도 모두 볼 수 없게 되면서 한순간에 우리가정은 혼란 속으로 빠져 들죠. 아이들은 숙제 하러 PC방으로 간다고 난리고 아빠엄마도 심심하게 TV 리모콘이나 만지고 이것저것 컴퓨터로 느꼈던 편리함이 모두 사라집니다.

아무런 탈 없이 한 번도 아프지 않던 놀이였는데 이상하게도 세상에 돌림병이 한번 돌면 영락없이 병에 걸리고 너무 많이 먹으면 비만이 되어서 움직임이 둔해지곤 하지요.

그리고 그렇게 똑똑 해보이던 녀석이 스스로는 절대 자기병을 못 고칠 뿐만 아니라 이제부터는 책상위에서 자리만 차지하고 더더욱 짜증만 내게 합니다.

### 애물단지라 항상 살피고 아껴야

이 컴퓨터의 만행은 수리하는 아저씨가 올 때 까지 계속됩니다.

옛날 농경 사회에서는 삽과 호미 낫등이 망가지면 손수 집에서 푹푹푹 고칠 수가 있었는데 산업사회로 발전 하면서 주위의 기계들이 망가지면 전문수리공의 손길이 닿아야만 수리가 되기 시작 했죠. 그러나 이 녀석이 병이나게 된 원인은 대부분 외부에서 인터넷 선을 타고 들어오는 악성코드와 바이러스라

고 불리우는 나쁜 프로그램들이 원인입니다.

즉 컴퓨터의 고장의 90%는 내장된 프로그램의 정상작동을 방해하는 또 다른 프로그램과의 문제입니다. 결국은 언제나 즐겁게 사용하던 우리가족이 이 녀석을 유해한 인터넷 환경속으로 데리고 다니다 그곳에서 아무도 모르게 따라온 광고 프로그램과 자기 만족에 빠진 해커들이 설치해놓은 함정에 빠져 이놈을 병들게 한 것 이지요. 안타까운 일이긴 해도 좋은 프로그램으로 다시 알맞은 환경으로 만들어주면 언제나 새것처럼 신나게 우리랑 놀아준답니다.

그리고 나머지 10%는 나이가 들어 요기조기 혈액순환이 잘 안되고 몸에 열을 식히는 장치들이 고장나서 열이 오르는 등의 문제로, 새로운 부품으로 바꿔주면 다시 젊음을 찾는답니다.

우린 우리의 새로운 가족이 되어버린 컴퓨터를 6개월에 한번은 진공청소기로 먼지도 털어주고 너무 덥거나 춥지 않은지 주기적으로 점검하면서 애완동물 사랑하듯이 항상 살피고 아끼면 우리가족을 위해 열심히 봉사하는 좋은 기계가 되겠지요.

